

2016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④	2	①	3	①	4	⑤	5	④
6	④	7	④	8	⑤	9	③	10	④
11	①	12	④	13	②	14	③	15	⑤
16	②	17	⑤	18	⑤	19	①	20	③
21	③	22	⑤	23	⑤	24	①	25	④
26	②	27	②	28	⑤	29	②	30	③
31	④	32	②	33	③	34	②	35	①
36	①	37	③	38	②	39	②	40	③
41	⑤	42	④	43	④	44	④	45	③

[화법]

1. [출제의도] 토의 절차에 따른 토의 내용 이해하기

대표3의 세 번째 발언에서 대표3이 대표2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 자율 동아리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대표1의 첫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대표2의 두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사회자의 세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사회자의 마지막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사회자의 역할 이해하기

이 토의에서 사회자는 토의 참여자의 모호한 발언에 대해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사회자의 첫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사회자의 세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사회자의 마지막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사회자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판단하기

<보기>는 자율 동아리의 가입 횟수를 제한했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주므로 대표3의 해결 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다.

② 동아리 개설 단계에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표1의 의견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동아리 활동에 주기적인 자체 평가가 실현 가능하다는 대표3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동아리 개설 여부를 심사하는 데 학생회 임원이 참여하자는 대표1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자율 동아리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주기적인 자체 평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표2의 의견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 [출제의도] 발표 계획의 반영 여부 판단하기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① ‘여러분의 11월 달력엔 어떤 날이 표시되어 있나요?’에서 질문을 통해 청중의 관심을 유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또박또박한 어조로’에서 반언어적 표현을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영상 자료를 보여 주며’, ‘학생 사진을 보여 주며’에서 시각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여러분, 우리가 90여 년 전~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 나가는 것입니다.’에서 실천을 강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청중의 듣기 전략 분석하기

청중3은 그동안 외면했던 세상과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발표자의 발표 내용

에 동의하고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표자의 발표 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들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청중1이 학생이 선봉에 섰던 독립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청중1이 영상 속 장면을 사진으로 본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청중2가 왜 1953년이 돼서야 이날을 기념일로 제정한 것인지 등 의문점을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청중3이 그동안 외면해 왔던 세상과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작문]

6. [출제의도]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학생의 초고에서는 글쓴이 자신의 경험, 신문 기사 내용 등을 통해 자신의 견의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존경하는 시장님’과 같은 정중한 표현과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행사를 취소했던 경험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클라우드 펀딩을 지원하는 기구의 마련이 필요한 이유를 나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1문단에서 ‘◇◇시에 살고 있는 행복고등학교 2학년 3반 이시현’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판단하기

(㉠)은 공공사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클라우드 펀딩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자료이고, (㉡)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공공사업이 대부분 지역사회의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두 자료로 한 개인이 적은 돈으로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은 공공사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클라우드 펀딩이 활용되고 있다는 자료이므로, 클라우드 펀딩을 적용할 수 있는 공공복지 사업의 영역이 다양하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방안은 적절하다. ② (㉡)은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공공사업이 대부분 지역사회의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자료이므로, 시도하지 못했던 지역 사회의 소규모 공공복지 사업을 클라우드 펀딩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는 방안은 적절하다. ③ (㉢)은 클라우드 펀딩을 사칭한 금융 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펀딩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므로 신뢰감을 주기 위해 클라우드 펀딩을 지원하는 기구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화한다는 방안은 적절하다. ⑤ (㉠)은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사업과 관련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은 사업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보완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므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클라우드 펀딩을 지원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뒷받침한다는 방안은 적절하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여러 물방울이 한 데 모여 물길을 만들 수 있듯이’에서 비유를, 문장 전체에서 대구를, ‘작은 정성이 클라우드 펀딩으로 모여 큰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에서 클라우드 펀딩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클라우드 펀딩의 의의를 밝히고 있으나, 비유와 대구를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클라우드 펀딩의 의의를 밝히고 있으나, 비유와 대구를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비유를 활용

하고 있고 문장 전체에서 대구를 활용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펀딩의 의의는 밝히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클라우드 펀딩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9.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의 사용 여부 파악하기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화제인 ‘우산 은행 제도’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우산 은행 제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갑자기 비가 내려 불편했던 경험을 환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첫째’, ‘둘째’ 등 순서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에서 독자들에게 ‘우산 은행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용해 달라는 당부의 말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의 ‘채집한’은 ‘널리 찾아서 얻거나 캐거나 잡아 모으다.’라는 의미이므로, ‘익은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다’는 의미의 ‘수확한’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그런데 고쳐 쓰기 방안에서 바꾸어 쓴 ‘수거한’은 ‘거두어 가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은 ‘빌려 주는’에 해당하는 목적이 빠져 있으므로 ‘우산을’을 넣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의 앞뒤 내용은 상반되는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또한’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에서 ‘귀가’는 ‘집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의 뜻이므로,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된 ‘집으로’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은 우산 은행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글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법]

11. [출제의도] 표준발음법 규정 적용하기

<보기>의 제13항에서 홀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 ‘들녘이’는 ‘들녘’의 받침 ‘ㄱ’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이’와 결합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들녘이’의 ‘ㄱ’은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되어 [들려기]로 발음해야 한다. ㉠에서 ‘들녘’의 ‘ㄱ’이 제13항이 적용되어 [ㄱ]으로 발음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의 제9항에서 받침 ‘ㄱ’은 자음 앞에서 대표음 [ㄱ]으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 ‘들녘도’는 ‘들녘’의 받침 ‘ㄱ’이 ‘ㄷ’과 결합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에서 ‘들녘’의 ‘ㄱ’이 제9항이 적용되어 [ㄱ]으로 발음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보기>의 제23항에서 받침 ‘ㄱ(ㄱ, ㅋ, ㆁ, ㄷ)’ 뒤에 연결되는 ‘ㄷ’은 된소리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 ‘들녘도’는 받침 ‘ㄱ’ 뒤에 ‘ㄷ’이 연결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인 ‘들녘도’의 ‘도’에서 ‘ㄷ’이 제23항이 적용되어 [ㄷ]으로 발음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보기>의 제18항에서 받침 ‘ㄱ(ㄱ, ㅋ, ㆁ, ㄷ)’은 ‘ㄴ,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 ‘들녘만’은 받침 ‘ㄱ’이 ‘ㄹ’ 앞에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인 ‘들녘만’의 ‘ㄱ’이 제18항이 적용되어 [ㅇ]으로 발음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보기>의 제20항에서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 [ㄹ]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 ㉡, ㉢의 공통된 단어인 ‘들녘’은 받침 ‘ㄹ’ 뒤에 ‘ㄴ’이 이어지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 ㉡, ㉢에서 ‘들녘’의 ‘ㄴ’이 제20항이 적용되어 [ㄹ]로 발음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 이해하기

‘단풍잎이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는 ㄹ인 ‘단풍잎이 흔들린다.’에 ㄱ인 ‘바람이 분다.’가 관형절로 안겨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바람이 불어서 단풍잎이 흔들린다.’는 ㄱ과 ㄹ이 종속적 연결어미 ‘-어서’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므로 적절하다. ② ‘차가운 바람이 분다.’는 ㄴ이 ㄱ에 관형절로 안기면서 ㄴ의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므로 적절하다. ③ ‘바람이 차갑고 단풍잎이 빨갳다.’는 ㄴ과 ㄴ이 대등적 연결어미 ‘-고’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므로 적절하다. ⑤ ‘흔들리는 단풍잎이 빨갳다.’는 ㄹ이 ㄴ에 관형절의 형태로 안겨 이루어진 문장이므로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피동문과 사동문의 특성 이해하기

능동문인 ㉠ ‘나는 그림을 보았다’에서 목적어 ‘그림을’은 피동문인 ㉡ ‘그림이 나에게 보였다’에서 주어인 ‘그림이’로 바뀐다. 따라서 ㉠과 ㉡를 보니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에서도 목적어가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능동문 ㉠에 나타나는 주어 ‘언니가’는 피동문인 ㉡에서 부사어 ‘언니에게’로 바뀌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주동문 ㉠이 사동문인 ㉡로 바뀔 때 ‘형이’라는 새로운 주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피동문 ㉡에서 피동사 ‘안겼다’와 사동문 ㉠에서 사동사 ‘안겼다’의 형태가 같으므로 적절하다. ⑤ 사동문 ㉡에서 ‘안겼다’는 ‘-기-’라는 접미사에 의해, 사동문 ㉠에서 ‘보게 했다’는 ‘-게 하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4. [출제의도] 단어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

㉠은 명사이고, ㉡은 의존명사이다. 명사와 의존명사는 조사가 붙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사용되므로 적절하다.

① ㉠은 조사이기 때문에 꾸미는 말의 꾸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은 조사이고 ㉡은 의존명사이다. 조사와 의존명사는 자립하여 쓰일 수 없지만 단어로 인정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은 의존명사로 문장 안에서 홀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되는 특징이 있는 것은 조사이다. ㉠과 ㉡은 모두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15. [출제의도] 중세국어의 형태소와 단어 이해하기

‘그칠씩’는 실질 형태소 ‘긋-’에 형식 형태소 ‘-ㄱ씩’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모’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남’으로 나타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적절하다. ② ‘보르매’는 명사 ‘보름’과 조사 ‘에’, ‘ㅁㅁ래’는 명사 ‘ㅁ물’과 조사 ‘에’로 이루어진 말이므로 적절하다. ③ ‘뽕씩’는 동사 어간 ‘뽕-’와 어미 ‘-ㄱ씩’로 이루어진 말이므로 적절하다. ④ ‘므른’은 명사 ‘물’과 조사 ‘은’으로 이루어진 말로, ‘물’은 하나의 형태소이자 하나의 단어이므로 적절하다.

[인문]

[16~19] <출전> 에드문트 후설, 「시간의식」

16.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

3문단에서 ‘현전화는 현재화를 기반으로 일어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현재화가 현전화를 기반으로 하여 일어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후설에 따르면 파지-원인상-예지’라는 현재의 지평이 형성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에서 ‘과학적 시간관에서는 현재는 과거나 미래와 단절된 점과 같은 순간’이라고 진

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현재의 지평 형성에는 현전화 작용도 영향을 미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에서 ‘고정된 사물을 보’는 때조차 ‘스토리를 만들려 하는 인간의 속성을 설명해’ 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3문단에서 ‘현재화가 원인상과의 감각적 연속성이 있는 것과 달리, 현전화는 원인상과의 감각적 연속성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현전화 작용 중 하나인 기대는 현재화 작용 중 하나인 예지와는 감각적 연속성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은 적절하다.

① 2문단에서 ‘원인상’은 대상을 지각하는 순간에 의식된 근원적 인상이며, 이는 의식적 변양을 거치면서 ‘파지’되며, 파지된 의식은 시간이 흐르며 의식 속에서 사라진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원인상은 파지되기 직전까지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에서 회상은 파지된 것이 의식 속에서 사라진 후에 다시 떠올리는 것이므로 원인상과는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② 4문단에서 ‘주의력에 따라 현재의 지평이 변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2문단에서 파지는 과거의 것이 의식 속에 남아 있는 것이라 했고, 3문단에서 의식 속에서 사라져 잊힌 것을 떠올리는 것을 회상이라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4문단에서 ‘예지가 충족되지 못’하면 ‘통일적 인상도 다른 양상으로 변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5문단에서는 이를 ‘경험을 통일성 있는 구조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통일성 있는 경험을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8.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3문단에서 예지를 미리 당기는 것이라고 진술했으므로 제2음을 듣는 순간에 미리 당긴 음은 제3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보기>에 따르면 (라)의 경우 제1, 2음의 음정이 완전 5도 이상의 넓은 음정으로 상행하고 있으므로 청자는 다음 음정은 하행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제2, 3음의 음정이 하행하고 있다. 따라서 청자는 제2음을 들을 때 예지했던 것과 제3음에 대한 인상은 같을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현재의 지평을 통해 지나간 것과 다가올 것이 함께 지각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청자는 제2음을 듣는 순간에도 제1음과 제3음을 함께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② <보기>에 따르면 (가)는 앞 음정이 완전 4도 이하의 좁은 음정이면서 상행하고 있으므로, 청자는 뒤 음정이 상행할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뒤 음정이 상행하였으므로 4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제3음을 들을 때 청자의 예지가 충족되어 직전에 가졌던 통일적 인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보기>에 따르면 (나)는 앞 음정이 완전 5도 이상의 넓은 음정이면서 상행하고 있으므로 청자는 뒤 음정이 하행할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그러나 뒤 음정이 상행하고 있으므로 4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제2음을 들을 때 일어난 예지가 제3음을 들을 때 충족되지 못해 제1음에 대한 인상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보기>에 따르면 (다)는 앞 음정이 완전 4도 이하의 좁은 음정이면서 상행하고 있으므로 청자는 뒤 음정이 상행할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그러나 뒤 음정이 하행하고 있으므로 4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제3음을 듣는 순간 직전에 가졌던 통일적 인상이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유사 이론과 비교하기

후설은 직전에 일어난 것을 파지를 통해 지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보기>의 브렌타노는 직전에 본 것이 사라지더라도 지각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 떠올릴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후설은 브렌타

노에게 직전에 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을 상상이 아니라 지각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후설은 파지를 통해 과거에 있던 장면을 의식 속에 붙들고 있는데, 이때 의식적 변양이 일어난다고 본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③ 후설은 지각한 것이 사라지더라도 파지를 통해 의식 속에 붙들고 있고, 회상을 통해 떠올릴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④ 후설은 과거에 대한 회상은 능동적인 작용으로 일어난다고 본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⑤ 후설은 시간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지평을 이룬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사회]

[20~23] <출전> 김대영, 「도시계획의 이해」

20.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도시내부구조를 분석하는 모델로 동심원모델, 선형모델, 다핵심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사회적 통념의 문제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도시내부구조를 설명하는 세 가지 모델을 소개하고 있으나, 그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세 가지 모델은 도시내부구조를 분석하는 이론으로, 가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가설들에 대한 한계와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동심원모델, 선형모델, 다핵심모델을 각각 설명하고 있을 뿐, 한 이론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다른 이론을 비판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1.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2문단의 ‘동심원모델은 1920년대 시카고를 대상으로 도시내부구조를 모형화한 것’과 ‘동심원모델은 시카고만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으로 보아, 동심원모델은 여러 도시의 내부구조를 분석한 모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의 ‘도시에서 업무, 상업, 주거, 공업 등 각종 기능 지역이 나뉘는 질서를 가지고 배치되어 있는 것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의 ‘도시 내부가 더욱 복잡해지면서~이에 등장한 것이 도시가 여러 개의 핵심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다핵심모델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6문단의 ‘이러한 모델들을 적용하여 도시내부구조를 이해하는 것은~도시의 변화를 예측하고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의 ‘이 모델(선형모델)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부챗살 모양의 간선 교통로가 생기면서~여기에 인접하여 중급 주거 지구가 형성된다고 보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2.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 이해하기

3문단의 ‘~고급 주거 지구가, 여기에 인접하여 중급 주거 지구가 형성된다고 보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2문단의 ‘동심원모델은~도시가 도심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이루며 커진다고 보았다.’와 3문단의 ‘도시가 도심을 중심으로~선형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도심의 인접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면~이동하게 된다.’와 ‘쾌적한 환경을 찾아 도심으로부터~도시가 이루어졌다고 본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의 ‘대규모 교통시설이 입지하는 곳에는 경공업 지구가~형성된다고 보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의 ‘도심에서 외곽으로 부챗살 모양의 간선 교통로가 생기게 되면 이를 중심으로 지대가 상승하여 고급 주거 지구가~형성된다고 보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A]의 둘째 내용에서 도심 주변이 지대가 비싸 도매업이 입지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① [A]의 ‘넷째’에서 주택 지구와 공업 지구가 집적하면 불이익이 발생하여 분리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A]의 ‘첫째’에서 공업 지구는 수륙 교통 관계가 좋은 곳에 입지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A]의 ‘둘째’에서 창고업은 도심 주변보다 지대가 낮은 곳에 입지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A]의 ‘셋째’에서 금융 기관이 한 지구에 집중되면 집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과학]

[24~27] <출전> 캠벨, 「생명과학」

24.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3문단에서 포도당 한 분자는 피루브산 2개로 분해되면서 2개의 NADH₂를 만들어 내고, 4문단에서 피루브산 두 분자는 8개의 NADH₂를 만들어 낸다고 했다. 따라서 포도당 한 분자에서는 10개의 NADH₂가 생성되므로 8개가 만들어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서 폐의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을 외호흡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모세혈관과 조직 세포 사이의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에 의해 조직 세포에서 산소가 영양소와 결합하여 산화되는 것을 내호흡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TCA회로에 투입된 피루브산 한 분자는 이산화탄소를 세 분자 만들고, 포도당 한 분자는 2개의 피루브산을 생성한다고 하였으므로, 포도당 한 분자에서 이산화탄소 6개가 만들어진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1문단에서 에너지는 사람이 체온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4문단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의 TCA회로에 투입된 피루브산 1분자는 이산화탄소 세 분자와 NADH₂ 4개, FADH₂ 1개, ATP 1개가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피루브산 1분자가 FADH₂는 2개, ATP 2개를 생성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소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는 모세혈관을 통해 산소가 조직 세포로 들어온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는 영양소가 모세혈관을 타고 조직 세포로 운반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포도당이 피루브산으로 분해되면서 ATP라는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ATP는 에너지원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에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전자전달계로 온 NADH₂와 FADH₂가 ATP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가정 상황 추론하기

5문단에서 산소를 이용한 호흡을 하는 경우 포도당 1분자로부터 38개의 ATP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효모가 산소를 이용한 호흡을 할 경우도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38개의 ATP를 얻는다. 그리고 6문단에서 효모는 무기 호흡을 통해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ATP 2개를 생산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만약 효모가 무산소 환경에서 유산소 환경일 때와 동일한 양의 ATP를 같은 속도로 생산한다면, 38개의 ATP를 만들게 되므로 산소를 이용한 유산소 호흡보다 포도당의 소모량이 약 19배가 늘어난다는 것이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생략된 전제 파악하기

5문단에서 산소는 전자 수용체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보기>를 통해 산소는 전자를 받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보기>에서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으므로, 포도당의 수소에 있던 전자를 잃는 산화의 과정이 일어나면 수소에 있던 전자를 얻는 환원의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따라서 전자 수용체로서 산소가 필요한 이유를 수소 원자에 있던 전자를 받아 환원되기 위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예술]

[28~30] <출전> 조선미, 「한국의 초상화」

28.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이해하기

4문단에서 조선 시대 초상화에는 인물의 성정을 드러내기 위해 실체감을 더 강조하는 화법으로 변모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의 ‘조선 시대에는 조상과 성현의 높은 덕행을 기리고 권계하기 위해 제사를 중시했다.~이러한 점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주인공의 얼굴은 칠분면이나 팔분면을 취하고 시선은 얼굴과 같은 방향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의 ‘담담하고 절제된 군자의 자세나 만듯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대상의 외모와 복장을 통해 그려내고자 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5문단에서 초상화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커다란 크기로 걸린다고 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2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3문단에서 야복을 입은 초상화는 욕심 없는 은일의 태도를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손을 노출시키지 않으면 얼굴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옷 주름 선 주변의 음영이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팔분면을 취하면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에서 배경을 그리지 않으면 주인공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중심 화제를 다른 관점과 비교하기

5문단에서 조선시대 초상화가가 인물의 내적 세계의 표현을 중요시하면서도 외적인 유사성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고, <보기>에서 빈센트 반 고흐가 인물의 내적 세계인 정신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인물을 똑같이 그리기보다는 선을 강화하거나 왜곡하고 보색의 병치를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5문단에서 인물이 지닌 미덕을 드러내기 위한 묘사에 주목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에서 빈센트 반 고흐가 인물을 똑같이 그리기보다는 선을 강화하거나 왜곡하고 보색의 병치를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에서 빈센트 반 고흐가 자신의 주관적 감정까지 초상화에 표출하기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5문단에서 왜곡이나 강화 없이 사실적으로 그리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현대시]

[31~33] <출전> 이육악, 「하나씩의 별」
신경림, 「갈구렁달」

31.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 ‘차무스에

서 온다는 사람들’,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눈 보라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에서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또 (나)의 ‘지금쯤 ~ 냇가에 앉아 저녁놀을 바라볼 시간’, ‘지금쯤 ~ 갈껌질 치며 고추잠자리 잡을 시간’이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목소리로 외쳐대고’,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몸짓으로 발버둥치다’ 등에서도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되어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① (가), (나) 모두 어조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 (나) 모두 애상적 정서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 (나) 모두 공간의 대비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가), (나) 모두 계절의 흐름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2.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가)의 ‘하나씩의 별’은 화물열차 지붕 위에 드러누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유이민들이 저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희망이자 소망을 의미하며, (나)의 ‘갈구렁달’은 고향에서 떠밀려 도시로 왔지만 이곳에서도 제대로 귀속되지 못한 채 서울의 주변부로 밀려나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닮은 것이어서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연민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가)의 ‘푸르른 바다와 거리 거리’, ‘골짜 골짜’은 과거, 이민열차를 타고 고향을 떠나던 사람들이 서러이 내다보던 창밖 풍경을 표현한 것이므로 해방 정국의 황폐화된 현실을 드러낸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는 고향을 떠났던 유이민들이 객지에서 겪었던 간난(艱難)과 고초를, (나)의 ‘별관에 버려진’은 시골과 서울 그 어느 곳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하고 도시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의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혈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혈벗은 나’는 화자가 동질감을 느낀 것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시골에서 내몰리고 서울에서도 떠밀려’는 고향과 도시 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귀속되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저녁놀을 바라볼 시간’이나, ‘갈껌질치며 고추잠자리 잡을 시간’은 고향에서의 추억을 화자가 떠올리고 있는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고전시가]

[34~37] <출전> 박인로, 「사제곡(莎堤曲)」
이현보, 「농암가(蠶巖歌)」
이승인, 「상죽헌기(霜竹軒記)」

34.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망극(罔極)훈 성은(聖恩)을 어니 각(刻)에 이질넉고’와 (나)의 ‘인사(人事)이 변(變)호들 산천(山川)이썬 가실가’, (다)의 ‘저 양심을 해치게 되는 것들이 어찌 식물이 서리와 이슬을 만나는 정도로만 그칠 뿐이겠는가.’를 통해 설의적인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① (가)는 ‘환구륜’과 ‘불거시니’를 통해 색채 대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세 작품 모두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는 표현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나)의 ‘인사(人事)이 변(變환)호들 산천(山川)이썬 가실가’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속성 대비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가)는 드러나지 않고 (다)는 ‘식물’과 ‘대나무’라는 자연물과 ‘사람’과 ‘상인’이라는 인간을 대응하여 주체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편편(片片)이’와 ‘첩첩(疊疊)이’에서 의태어를 확인할 수 있다.

35. [출제의도] 화자의 정서와 태도 파악하기

(가)의 ‘힘 세이 다토면 내 분에 올라마는/금(禁)히
리 업술식 나도 두고 즐기노라’와 ‘흥물며 남산(南山)
느린 굿희 오곡(五穀)을 가초 심거/먹고 못 남아도
굿지나 아니흐면/내 집의 내 밥이 그 맛시 엇더흐노’
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자족감을 확인할 수 있
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감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천공
(天工)이 공교(工巧)히야 뭇빋줄 쏘이는가’ 등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받은 감흥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
지 않다. ④ (가)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
한 경외심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시시(時時)로 머리 드러 북신(北辰)을 바라보
니/눈 모르는 눈물이 두 사막에 다 젖는다’를 통해
임금 곁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
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대상의 부제로 인한 안
타까움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A]는 화자가 ‘운길산’에 올라 ‘사제’의 경치를 바라보
고 그 감흥을 드러내는 부분이므로, 화자가 ‘사제’를
유자적 자세를 다짐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B]는 화자가 ‘사제’ 주변의 경치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면서 자연을 즐기며 살겠다는 자세를 드러내는
부분이므로 적절하다. ③ [C]는 화자가 ‘오곡(五穀)’을
심고 ‘채산조수(採山釣水)’함을 드러내는 부분이므로
적절하다. ④ [D]는 맛난 음식으로 부모님을 봉양하기
에 넉넉하다 할 수는 없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
을 베풀고야 말겠다는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므로 적
절하다. ⑤ [E]는 임금을 향한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이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나’는 ‘색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에 대해 동요된
적이 없는 ‘상인’의 자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
내고는 있지만, ‘상인’의 모습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
람’에게 전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는 ‘상인’과의 만남에서 ‘상인’이 ‘나’를 비루하
게 여기지 않아 기문을 써 달라는 그의 요구에 응했으
므로 적절하다. ② ‘나’는 ‘대나무’가 ‘서리와 이슬’을
만나도 가지와 잎이 여전하고 홀로 향기를 내뿜고 있
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는 상인이
자신의 초당을 상죽이라 명명한 것은 상인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는 색과
냄새, 소리, 맛, 편안함을 취하는 과정에서 양심을 해
치게 되는 것이 식물이 서리와 이슬을 만나는 정도로
만 그치지지는 않는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소설]

[38~40] <출전> 박완서, 「어느 시시한 사내 이야기」

38.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나’가 중략 이전 부분에서 멀미와 관련된 자신의 내
면세계를 서술하고 있고, 중략 이후 부분에서 자신을
괴롭혀 온 괴물의 실체를 파악해 가는 과정을 내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김복록’이 악을 쓰는 행동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글은 비극적 분위기도 아니고 분위
기의 반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
다. ③ ‘김복록’을 ‘추한 얼굴’, ‘괴물’ 등으로 인식하는
부분에서 ‘나’가 ‘김복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내부 이야
기와 외부이야기로 구성된 액자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지 않고 큰 사건들을 시간의 순서에 의
해 나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의도] 소설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부친으로부터 꽤 기쁨이 잡힌 면직물 공장을 ~ 의욕 도
야망도 없었다.’에서 ‘면직물 공장을 물려받았을 때’ ‘나’
가 부친이 일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별다
른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① ‘부친으로부터 꽤 기쁨이 잡힌 면직물 공장을 물려
받았을 때만 ~ 나는 미리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에
서 ‘면직물 공장을 물려받았을 때’ ‘나’가 두려움이 있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사업을 하려면 마땅히 감
당해야 할 어려운 일은 ~ 느글느글한 멀미가 되어 나
에게 작용했다.’에서 ‘어느 순간’ ‘나’가 부조리한 일에
멀미를 느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나는 일어나면서
김복록을 뚫어져라 응시한다. ~ 나에게 그 고약한 멀
미를 일으키게 한 징그러운 괴물의 정체로서 파악한
다.’에서 ‘그날’ ‘나’가 멀미의 실체를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는 그날부터 다시 장난감 만들기에 골
몰할 수 있었다.’에서 ‘그날’ ‘나’가 예전에 골몰했던 일
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소설 감상하기

‘김복록’에게 ‘측량’을 하고 ‘수속’을 밟으라고 말하는
장면은 주인공인 ‘나’가 속물적 인간인 ‘김복록’에게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밝히는 부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직물계’에 ‘큰 자본이 투입’되고 ‘대기업화’되었다
는 것은 이 시기에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수지맞는 일이라면 염치 불구하고’ 작
은 분야까지 ‘넘보는 대자본’의 모습은 이익을 위해서
는 비양심적인 일도 가리지 않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김복록’을 ‘징그러운 괴물’, ‘탐욕’, ‘비열’, ‘파렴치’
로 파악한 것은 주인공이 속물적 인간과 세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멀미’를 피하지
않고 ‘그와 맞서’ ‘자유로워지려는’ 자신을 ‘자각’하는
모습은 ‘멀미’에 맞서 본질을 깨닫고 자유로워지는 자
신을 깨닫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고전소설]

[41~43] <출전> 작가 미상, 「김원진」

41.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이해하기

등장하는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
하지 않다.

① ‘공주’와 ‘강문추’의 대화, 황성에서 ‘상’과 ‘김규’의
대화 등에서 주인공이 지혈에서 황성으로 돌아오지 못
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황성으로
돌아온 ‘공주’가 ‘상’과 ‘황후’에게 지난 일을 말하는
장면에서 요약적 진술을 통해 과거 사건의 경과를 나
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어찌 감히 속이리오?’
라는 부분에서 ‘강문추’와 ‘군사’가 ‘상’을 속일 수 없
을 것이라는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이제 김원이 지혈에 들어
가~저의 공을 빼앗음만 같지 못하다.’라는 강문추의
내적 독백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짐작할 수 있
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이해하기

⑥인 황성에서 ‘상’이 ‘김규’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
‘김원’의 종적을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
하지 않다.

① ‘원수’가 ‘공주’에게 ‘신은 신자(臣子)라 ~ 어찌 감
히 먼저 올라가리이까?’라고 말한 부분에서 ‘원수’가
자신의 신분을 언급하며 ‘공주’의 제안을 거절하였으

므로 적절하다. ② ‘눈물을 흘리며 금덩에 올라 모든
여자를 거느리고 황성으로 행하니’와 ‘공주의 일행이
여러 날 만에 황성에 도달하니’에서 ‘지혈’에서 나온
‘세 공주’가 같이 잡혔던 여인들을 데리고 ‘황성’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원수’가
‘공주’에게 ‘황상의 기다리심이 일각이 삼추 갈사오
니’라고 말한 부분에서 ‘원수’가 ‘황상’이 공주들을 애
타게 기다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송방’이 ‘상’에게 ‘신이 생각하오니 김원의 공을
꺼려~지혈을 메운가 싶사오니’라고 말한 부분에서
‘송방’이 ‘김원’을 시기하는 사람이 그를 해쳤을 것이
라고 추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막내 공주’가 ‘첫 공주’에게 ‘일이 여차하니 빨리 서울
에 올라가~옳을까 하나이다.’라고 한 말은 지혈에 갇
힌 ‘김원’의 소식을 빨리 황상에게 알려 구하자는 의
도이므로 ‘김원’이 현실 세계로 귀환했다는 진술은 적
절하지 않다.

① ‘강문추가~흙과 돌을 운반하여 지혈을 메웠다’에서
부하인 ‘강문추’의 배반으로 주인공인 ‘김원’이 위기에
처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상이 옳게 여
겨 친국을 배설하고~능지처참하셨다.’에서 ‘상’이 ‘김
원’을 배반한 ‘강문추’를 처벌한 것은 권선징악적 의식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적절하다. ③ ‘세
분 공주는 등우리에 오르소서~신은 나중에 올라가겠
습니다.’에서 주인공이 투철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음
을 알 수 있어 적절하다. ⑤ ‘신이 대대로 나라의 은
혜를 입사와~황공하움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에서
유교적 충 의식이 작품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
적절하다.

[희곡]

[44~45] <출전> 송영, 「호신술」

44. [출제의도] 희곡 이론을 사례에 적용하기

㉠에서 ‘춘보’와 ‘상룡’은 같은 무대 위에 있으면서
‘춘보’가 무대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관찰하며 ‘상
룡’에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관찰자 보도’의 사례로
적절하다. 또한 ㉡에서 하인B는 무대 밖에서 무대 위
로 급하게 들어오며 무대 밖에서 이미 벌어진 사건을
‘상룡’에게 현재 시점에서 보고하고 있으므로 ‘보고자
보도’의 사례로 적절하다. ㉢은 ‘체육가’가 무대 위 대
화 상황에서 ‘상룡’의 말에 동조하는 말로 ‘관찰자 보
도’나 ‘보고자 보도’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45. [출제의도] 희곡의 형상화 방법의 적절성 파악하기

‘상룡’, ‘춘보’, ‘하인B’의 대화 상황이라는 점과 ‘하인
B’가 무대 밖에서 급히 들어오면서 대화에 참여한다
는 점에 주목한다면 ‘상룡’에게만 조명을 집중하여
그 인물만 보이게 하라는 연출자의 지시 내용은 적
절하지 않다.

① ‘춘보’와 ‘상룡’의 대화를 통해 ‘춘보’와 ‘상룡’이
상하 관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멀리
떠드는 소리, 악쓰고 노래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깨지는 소리, 노랫 소리’로 볼 때 적절하다. ④ ‘창을
활짝 열어 놓는다’, ‘아서 꼭 닫어~’ 등으로 보아, 배
우들이 무대 밖의 상황을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연
기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자- 전
화- (전화를 한다.) 네 영감이슈- 뭘요’ 등으로 보
아 ‘상룡’이 무대 밖의 인물과 전화를 통해 대화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